

(3) 소작인조합의 성장

1920년대 조선 각지에서 설립된 소작인조합은 그 조직화 과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.

첫째로는 당시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으로서, 면이나 리 단위로 조직되었다가 군연합회로 발전한 소작인조합이다. 그 중에서 최초로 군연합회를 결성하고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순천이다. 그후 광주·광양·여수 등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군 단위 연합체가 삼남지방 각지에서 결성되었다.

둘째로는 조선 노동공제회의 지방분회가 군 중심지에 먼저 결성되고, 이것이 중심이 되어 1922년 후반부터 농촌에 대한 활동(선전·조직활동)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각 면에 지부를 조직한 것이다.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진주·광주·대구의 조합이 있다. 그 중에서도 농민문제 선언을 실천에 옮긴 1922년 9월의 진주 소작노동자대회는 그 지역 농민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, 진주에서는 그후 10월까지 10여 개의 지부, 8,000명을 조직하였다. 이 3개의 조합은 전부 사회주의자가 주도하는 조선 노동연맹회의에 가맹하였으며, 1923년 8월에는 이 3지역에서 북성회의 강연회도 열린다. 이런 관계를 볼 때 3개의 조합은 사회주의자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.

셋째로는 조선 소작인상조회 계열의 소작인조합이다. 조선 소작인상조회는 계속 생겨나는 소작인조합에 대항하기 위해 친일파의 거두인 대지주 송병준이 중심이 되어 1921년에 조직한 것이다. 상조회는 지부가 한때 각지에 설치되었으나 소작인들에게 그 본질이 알려지자 차츰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, 일부는 농민의 이익에 따르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. 조선 소작인상조회 지방지부의 결성은 그 주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작농민의 단결을 촉진하는 계기를 준비하고 마련해주었다. 그 일례가 영동 소작인상조회 영동지부 창립총회에서 장준이라는 인물이 “송병준은 대지주이므로 지주와 대결하는 조합인 상조회는 회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. 우리 소작인은 창립정신으로써 영동 소작인상조합을 결성하자.”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.

이상 3계통의 소작인조합은 그 설립과정이나 사회주의자의 영향력 등에 차이점을 가지면서 동질의 운동을 전개해나갔다.